

靑少年期の 自我正體感 形成水準과 環境要因에 關한 研究

간호과 전 은 희
조교수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950년대 미국의 精神分析學者 Erikson(1959)¹⁾이 正體感(identity)을 함축성 있는 정신분석학적 自我 心理學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 용어는 論理學이나 哲學의 영역을 넘어 精神醫學, 心理學, 社會學, 教育學과 같은 모든 科學에서 사용되었다.

Erikson은 自我正體感(ego-identity)을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동질성 및 일관성과 부합되는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서술하였다.²⁾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의식되지 않은 채 일생동안 계속되는 발달이며³⁾, 특히 靑少年期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된다. 靑少年期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로서 사회적 역할이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自我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理想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 때를 正體性 對 役割昏迷의 段階(identity vs role confusion)라 하여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의 설정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정체감 혼미(identity confusion)가 일어나 적응문제를 겪게 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⁴⁾ 이것을 Erikson은 正體感의 危機라고 불렀다.

靑少年期에 정체감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자아정체감이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에 핵심을 이루며, 개인의 기본적인 준거의 틀로서 자신의 신체적, 성격, 지적, 직업적, 가정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자기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을 파악하게 하는데 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靑少年期는 인생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크게 결정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며⁵⁾ 더우기 정체감이란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자연히 신체적 성숙으로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정체감 추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일관된 의미있는 자아개념을 창출해 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체감의 확립은 개체로 하여금 과거와의 持續性 및 미래로의 投射를 수용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여준다.⁶⁾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의 많은 부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아정체감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가정, 학교 및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속에서 사회의 가치체계가 혼란되고 문화와 사고의 단층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 여러 사회기관이 제시하는 역할모형이 서로 달라서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으며 이같은 변화의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자기나름의 의식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휘말려 가고 있다.⁶⁾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한 지식량의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갈등 등이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신적인 결핍상태가 야기되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제반환경들은 전례없이 악화되어 있으며 교육적으로 순화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로 불리우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정체감을 확립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확립이 되면 자기자신에 대한 신념과 수용적 태도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실현의 구체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짓게 되고 타인과는 동일시 공동체의식을 가지므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役割昏迷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며,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열등시하여 目標指向性과 方向感覺을 상실하여 無原則한 행동과 타인을 불신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시되어진 여러 가지 논점을 고려해 볼 때 靑少年期에 있어서 올바른 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정체감의 昏迷속에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이탈행동의 표출로서 청소년 탈선과 非行靑少年의 급증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는 다인수 집단이다. 양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적 지표이며, 교육과 지도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양가능성의 기로에 서있는 과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내변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적응실패, 비행발생 정도로 해마다 증가되어 1990년 한해에 범법 청소년으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자만도 10 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⁷⁾, 범법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우려하거나 또한 청소년 자신들이 문제상황에 놓여 있다고 자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면 심각한 정도로 많은 수의 문제청소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31%의 학생이 치료를 요하는 중증상태이고 23%의 학생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으며 46%만이 정상적인 정신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⁸⁾ 정신병리학에 의하면 부적응의 공통특성 중 하나가 기본적 신뢰의 부재이다. 정신질환자들의 행동 중 퇴행성과 피기성은 지각과 현실, 언어와 그 의미간의 사회적 상호성을 부인하는에서 연유되며 防禦機制 중 投射(projection)와 撮取(introjection)를 통해 고통

은 외면화시키고 쾌감은 내면화시키려는 유아기적 성격이 고착될 때 발생한다. 한편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는 그 규범과 가치관이 성인들의 주류문화와 대치 상충되는 반대문화(대항문화)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바 非道德性, 非規範性, 自己葛藤, 自己遊離 등 현대사회의 아노미(anomie)적 문화풍토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따라서 靑少年期의 주체적인 자기 조정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심층적 이해와 지도방안 탐색 및 건전한 인성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아정체감의 구체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靑少年期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先行研究를 검토해 볼 때 연구대상자를 정상적인 일반학생만을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수준과 특정 관련변인의 결과들과 관련지어 그 관계성을 추론하고자 한 연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바 비정상적인 청소년집단에 대한 자아정체감수준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함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과의 자아정체감 형성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특히 소년원에 수감중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先行研究^{10),11)}에서는 원생들이 오랜 수감 상태에 선도교육을 받아 정상청소년들과 같은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경찰서로 즉시 들어오는 비행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과의 自我正體感의 形成水準에 대한 정확한 差異를 糾明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정상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이 家庭, 社會環境 그리고 心理的 要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報告한^{12),13),14)}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非行의 環境的 要因들중 특징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여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과의 어떠한 環境的 差異를 보이고 있는지를 추가 糾明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의도하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비행청소년집단의 자아정체감 형성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정상청소년집단과 비교해 볼 때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징적 환경요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研究의 制限點

1. 정상청소년인 학생들중에도 비행을 저지른 불량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2.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비행청소년은 서울시 N구에 소재한 N 경찰서로 들어오는 비행청소년집단이며 정상청소년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P 고등학교 남학생 1,2학년 각 한 학급만을 정상청소년집단 대상으로 表集하였으므로 全集을 代表한다고 推定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모든 지역에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自我正體感의 定義 및 形成過程

自我의 개념은 본래 정신분석학에 기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自我에 대한 연구 동향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대상으로서의 自我(ego as object)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정신 내적 성질에 접근해 가기 힘든 방법상의 곤란이 있다. 그런데 Erikson의 自我正體感(ego-identity)은 정신분석학과와 최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유용한 통합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Erikson(1974)²⁾의 自我 理論은 현재 自我 이론중 가장 독특한 이론이며 自我正體感은 Erikson의 이론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주관적 측면의 개인적 정체감과 객관적 측면의 심리 사회적 정체감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시간의 경과속에서 유지되는 同質性(sameness)·連續性(continuity)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동질성과 일관성과 부합되는 내적 동질성·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¹⁾ 그리고 심리 사회적 정체감은 그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일치성을 말한다. 이는 그 개념이 조작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다소 모호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민족의 고유한 역사에 의해 이룩된 고유한 가치에 대한 개인의 귀속감을 의미하기도 한다.³⁾ 지금까지 개발된 정체감 측정 도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① 자기정의를 명확히 인식함 ②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한 결단 ③ 결단의 실행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 ④ 정체감 선택의 범위에 대한 고려 ⑤ 자기 수용의 범위 ⑥ 개인적인 독특성 ⑦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였다.

自我正體感의 形成은 幼兒期때 얻어지는 信賴感(특히, 母子關係)을 기본으로 개체의 경험의 一貫性 또는 同質性에서부터 형성 발달된다고 하나 진정한 정체감의 형성은 青年期부터 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兒童期 때의 여러 가지 同一視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거부 배제 하기도 하고 또 이 단계에 새로 획득한 同一視가 서로 동화되고 또 새로운 짜임새(configuration) 속에 짜여 들어 감으로서 정체감 형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면서 발달되어 가는 것이며 새로운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전 단계의 동일시의 요소들이 새로운 구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⁶⁾ 이 때 개체내에서는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와 정신적 준비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그러나 종종 상충되는 사회적 요구들이 모두 이전에 개인이 이루었던 적응들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또한 이전의 기회 및 보상들을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이 때 과거의 정체감의 결정들이 새로운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일어나는 심리, 성적 변혁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심리, 사회적 요구들에 직면해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위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즉 “나란 어떤 사람인가?” 또는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한다.¹⁶⁾

그러나 이 위기를 정체감 형성의 한 과정으로서, 즉 짜임새가 진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발달적, 규범적 위기는 성장 과정에 새로운 에너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강요된 外傷的인, 그리고 신경증적인 위기와는 다르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自我 統合이 再統合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립되어 나간다는 것이다.¹⁷⁾ 특히 靑少年期의 성적 성숙은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혁을 초래하며 결정적인 직업선택, 맹렬한 경쟁 그리고 심리, 사회적 自己 定義에 동시에 관여할 것의 강요가 정체감의 昏迷를 일으키지만 극히 심한 병리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이 위기를 규범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생산적인 계기로 보고 있다.¹⁾

이와 같이 자아정체는 계속적인 자아정체위기의 극복을 통해 발달되어 간다. 대개의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데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한 결정에서 부터 진로 선택이라든가 정치적 참여 여부 등에 관한 결정 등이 모두 자아정체감 형성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結晶과 개인적 판단의 準據는 점차 일관성있는 구조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고 발달되어 간다. 그러므로 잘 발달된 자아정체감 구조는 잘 발달된 초자아(superego)처럼 융통성이 있어 성숙된 자아정체감을 기반으로 자아정체감 내용을 광범위하게 재 조직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삶의 위기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이데오르기케도 관여 한다고 한다.¹⁸⁾ 그러면서 Erikson(1959)¹⁾ 은 정체감의 형성이란 靑少年期에서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개인과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일생동안 발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Jacobson(1964)¹⁹⁾ 도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서 줄곧 발달해 간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으며 Douvan과 Adelson(1962)²⁰⁾ 도 “정체감이란 청년기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동안 형성하고 재조정해 나가는 것” 이라고 말했으며, Murray(1964)²¹⁾ 도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일생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라고 했다.

2. 自我正體感에 關한 先行研究

자아정체감과 특정 관련변인의 결과들과 관련지어 그 관계성을 추론하고자 한 대표적인 先行 研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llak et. al.(1973)²²⁾ 은 정신장애자의 자아기능 수준을 조사하였던바 자아기능이 정신분열병과 신경증적 장애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낮다고 했다.

Kodan dalam(1981)²³⁾ 은 범죄자, 정신분열증 환자, 신경증 환자와 정상인에서 사회적 정체감을 조사하였던바 범죄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사회 정체감의 평균 수준은 유사하였으나, 정상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는 정신 장애와 자아정체감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Offer(1981)²⁴⁾ 는 비행청소년의 자아상이 정상청소년에 비해 왜곡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하

(1984)²⁶⁾ 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주체성이 정상인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를 정신장애와 자아정체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示唆해 주었다.

Hauser(1983)²⁷⁾ 는 정신과 환자,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과 환자에 있어서 자아발달이 늦고 自我想(self-image)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Gruen(1960)²⁷⁾ 은 Erikson의 이론에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사람은 남들에 의한 평가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統整된 역할양식의 안정성을 보일 것이며 自我昏迷가 있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낮은 자아정체감은 자기와 理想間的 거리가 크다는 것으로 定義하였다.

Rasmussen(1964)²⁸⁾ 은 심리, 사회적 적응의 능력이 다르면 자아정체감이 다를 것이며 적절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자아 흥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초기 성년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더 잘 해결해 나갈 것이며 만족스런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자아 흥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受容度가 더 클 것이라는 3가지 가설을 세워 그 중 두번째 가설만 입증 못하였다.

Dignan(1965)²⁹⁾ 은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며 자기를 묘사해 주는 自己參照의 傷들의 복합이라고 정의하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클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Marcia(1966)³⁰⁾ 는 靑少年期에 있어서의 자아정체감 문제를 Erikson의 이론으로 전개시키면서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자아 의식의 성숙이나 확립은 危機(crisis)와 關與(commitment)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위기는 개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념이나 직업의 선택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관여는 그 개인이 나타내는 개인적 투자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

徐鳳延(1975)³¹⁾ 은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한국과 서독 청소년과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비교한 바 있다.³²⁾

趙修延(1982)³³⁾ 은 “고등학교 교육의 분화체제가 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공업계와 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결과 자아정체감에서 독특성 이외 7개의 하위요인이 인문계가 높으며 IQ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이 없으며 인문계가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인미(1984)³⁴⁾ 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한 조사 연구로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학년별, 가정경제 수준별, 형제수, 학업성취도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金炯泰(1989)¹¹⁾ 는 “靑少年期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중, 고, 대학생 그리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정체감 척도 즉 발달단계형 척도, 구성요인형 척도 및 지위분류형 척도에 의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심

리적 환경,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모두 밀접한 상관을 갖고 있으며, 연령집단별 자아정체감 발달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이 자아정체감 발달의 시기라고 보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昏迷에서 成就의 방향으로 이행된다고 하였다. 더우기 정상 청소년 집단과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간에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靑少年非行的 概念과 發生原因

靑少年期는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융통성을 지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에 사회의 기대나 욕구, 자신들의 가치관, 신조, 자신의 신체적·생리적 발달에 따른 변화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청소년들의 현실화될 수 없는 욕구를 강요하는 기성체제로부터 소외감을 느낄수록 반 사회성을 띤 이탈성향을 가지게 된다.³⁵⁾

청소년비행이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의 청소년들의 犯法行爲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이를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으로 대별하고 있다. 犯罪少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觸法少年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이는 형사책임을 없다. 그리고 虞犯少年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감독에 복종치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여 앞으로 법을 어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외에 경찰의 규정이나 아동복지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不良行爲少年이나 要保護少年도 역시 청소년비행의 범주에 들어 갈 것이다. 불량행위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소년이 음주, 흡연, 흉기 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이며, 요보호소년이란 보호자가 책임지고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의 청소년들을 말한다.

그런데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은 행위만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장래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있고 유능한 경찰간부가 전담처리하게 되어 있다.³⁶⁾

한편으로 상기의 청소년비행자의 비행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은 內的 原因과 外的 原因 즉 소질과 환경의 측면으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성격, 신체적 특징, 혈통, 성별 등과 같은 개성적 원인은 前者에 속하여 後者에는 주로 개체의 외적 생활공간인 자연,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문화적 諸 環境요인을 포함시킨다. 그리하여 양자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으로 범죄 또는 비행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非行的 原因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영역, 즉 첫째, 家庭環境의 領域 둘째, 社會環境의 領域 셋째, 心理的 側面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家庭環境의 原因에는 부모의 결혼과 父의 실적, 무직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결혼 소년들에게서는 정서적 불안정감, 욕구불만, 도덕적 황폐성 등 인격의 왜곡된 측면과 사회성

발달에 障害을 받아 잠재적 비행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社會環境的原因에는 문화갈등, 문화실조, 도덕, 가치관, 마스크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갈등의 요소를 보면 성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고방식의 차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르는 가족주의적인 협동심의 파괴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계층의 쾌락추구에 자극된 청소년들의 가치상실로 인하여 비행의 억제기능이 약화되고 욕구의 충족을 가속화하여 비행을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文化失調의 내용으로는 부모의 낮은 학력, 봉건적 교육방법, 교육기회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도덕, 가치관의 혼란 등이 비행원인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전통논리와 외래윤리(성개방과 퇴폐풍조)와의 相衡에서 야기된 혼란 등으로 유희, 유희, 허영 등이 두드러진다.

세째로 心理的原因의 하나인 생물학적 異常에 따르는 심리상태로는 承認의 욕구, 성취의 욕구는 정상아보다 강하고, 흥분하거나 반항하기 쉽고, 정상인에 대해 疾視하거나 양심을 품고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예가 많다. 사춘기의 정서적 장애에 의한 심리상태를 보면 차별, 경시, 비난 등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의 반응이 극단적이다.

또한 이들은 불쾌한 상황을 도피하려는 심리가 있고, 부모, 형제, 교사들에 대한 적의나 질투심 또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감정이 있고, 손상당한 自我를 남성적 저항방법인 폭행, 공갈 등에 의하여 지지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의 裏面的 상황에 잘 통하고, 교사의 陳腐한 주의나 소망은 잘 받아 들이지 않으며, 태도가 일반적으로 소극적이고 昇華의 感情移入이 어렵다.³⁷⁾

Ⅲ.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및 調査期間

本 研究의 對象 중 정상청소년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P 高等學校 1학년(65명), 2학년(63명) 男學生 총 128명이 질문지의 응답에 집단 참여하였으나 그 중 無效한 질문지 자료들을 제외한 116명(평균연령 16.67세)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조사기간은 1992년 4월에 실시되었다. 한편 비행청소년은 1992년 1월부터 1992년 4월까지 4개월동안 서울시 N 구의 N 경찰서에 비행 사실로 그 지역 각 파출소로부터 호송되어 들어오는 비행청소년 총 116명 중에 질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비행청소년 11명을 제외한 108명(평균연령 16.23세)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2. 資料蒐集 方法

本 研究의 資料蒐集 方法으로서 정상청소년 대상은 학교장의 허락하에 각반 담임선생님에게 研究目的과 趣旨를 자세히 설명을 드려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은 경찰서 강

력계 수사반장의 사전협조하에 수사요원들에게 역시 研究目的과 趣旨를 설명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협조 부탁드려 자료를 회수하게 되었다.

3. 研究道具

1) 自我正體感 檢査 尺度

本 研究에서 自我正體感을 檢査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는 타당도가 높은 Dignan (1965)³⁰⁾ 의 “자아정체감 척도(ego-identity scale)”를 徐鳳延(1975)³¹⁾ 이 번안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로서 이 척도의 문항수는 총 64 개의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자아정체감에 내포된 하위구조를 측정하는 8개 下位尺度로 구성되어 있다. 8개 下位尺度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安靜性(stability) :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一貫된 同質的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② 目標志向性(goal-directedness) :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며 목표달성에 대한 자기주장을 뜻한다.

③ 獨特性(uniqueness) : 현재의 능력 및 신체적 심적 특성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自我傷을 말한다.

④ 對人役割期待(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 적절한 性的 正體感(sex-identity), 적합한 사회적 역할, 만족스러운 직업역할 성취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한다.

⑤ 自己受容(self-acceptance) :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수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거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自我傷을 말한다.

⑥ 自己主張(self-assertiveness) :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의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말한다.

⑦ 自己存在意識(sense of self) : 자기에 대한 깊고도 자세한 경험, 즉 어떤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自我傷인가 하는 지식을 말한다.

⑧ 對人關係(interpersonal-relation) :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2) 靑少年들의 特徵的 環境要因 調査

本 研究者는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이 차이를 규명하고자 청소년 非行에 관한 理論的 背景³²⁾ 과 社會心理學的 側面¹²⁾ 을 考察하여 (1) 종교 (2) 출생순위 (3) 부모의 생존여부 (4) 가족의 월수입 (5) 가족제도 (6) 부친의 직업 (7) 모친의 직업 (8) 성장시 기거장소 (9) 성장과정 중 부모의 동거여부 (10)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 (11) 가정내 문제점 (12) 성장과정 중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12가지 문항의 설문지 내용에 대해 응답하고자 한 여러 가지 항목들중에서 한가지 항목만을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4. 統計處理

本 研究의 統計處理는 IBM-16bit 를 이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의 personal computer version인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統計分析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 척도별과 하위척도의 합인 전체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집단의 평균치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2)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징적 환경요인의 항목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에 의한 사례수와 빈도율(%)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양집단간의 항목별 문항에 대한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 값과 유의수준을 산출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考察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정체감 8개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 수준에 대한 비교

〈표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정체감 비교

하위척도	집단구분 및		정상집단(N=116)		비행집단(N=105)		자유도	t-value
	M.S	S.D	M.S	S.D				
① 안 정 성	18.78	3.86	17.04	3.71	219	3.42 ***		
② 목 표 지 향 성	20.69	4.35	18.30	3.52	219	4.47 ***		
③ 독 특 성	19.71	2.98	18.90	2.98	219	2.00 *		
④ 대 인 역 할 기 대	21.84	3.19	18.96	4.90	219	5.23 ***		
⑤ 자 기 수 용	21.41	3.84	20.20	4.32	219	2.20 *		
⑥ 자 기 주 장	20.57	3.06	19.69	3.43	219	2.02 *		
⑦ 자 기 존 재 의 식	21.64	3.30	19.81	4.53	219	3.45 ***		
⑧ 대 인 관 계	21.72	2.95	20.62	3.00	219	2.76 **		
자아정체감의 전체척도	164.81	13.75	153.51	16.05	219	5.63 ***		

* P<0.05, **P<0.01, ***P<0.001

N: Number, M.S: Mean Score, S.D: Standard Deviation

〈표-1〉은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주체성 8개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의 평균 득점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검증(t-test)을 나타낸 것이다.

1) 자아정체감 8개 하위척도의 평균 득점에 있어서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獨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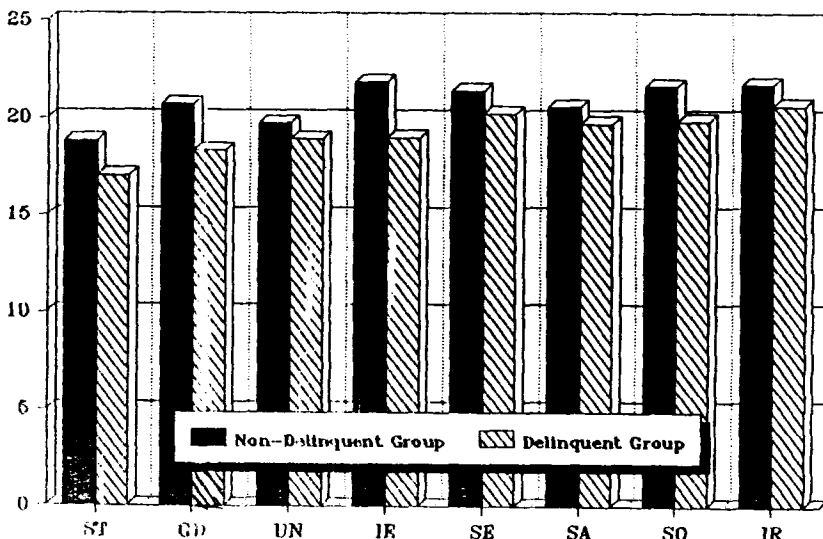
($P < 0.05$), 自己受容($P < 0.05$), 自己主張($P < 0.05$), 對人關係($P < 0.01$)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척도중 安靜性($P < 0.001$), 目標志向性($P < 0.001$) 對人役割期待($P < 0.001$), 그리고 自己存在意識($P < 0.001$)에서는 아주 유의하게 낮은 득점을 보였다.

2) 전체척도 평균 득점에 있어서도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현저하게 낮은 득점을 보였다.($P < 0.001$).

以上の 연구결과는 靑少年期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체감 追求에 실패하면 그들은 自己疑心, 役割散漫, 役割昏迷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파괴적인 편견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뚜렷한 正體感 昏迷(identity confusion)의 상태는 靑少年期의 육체적 성숙, 단호한 직업선택, 격렬한 경쟁 또는 심리 사회적인 自己定義 등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노출될 때에 잘 드러나 自己散漫이나 正體感 昏迷가 지속될 때 非行이나 心理的 異常에 이를 수도 있어 청소년들의 계속적인 役割 昏迷는 결국 나쁜사람이 되거나 전혀 쓸모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Erikson(1968)²⁸⁾의 正體感 形成 理論과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집단이 정상청소년집단에 비해 정체감 수준이 낮아 정체감 형성에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示唆한 본 연구결과와 比較·考察해 볼 때 같은 脈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와 정상인의 사회적 정체감을 조사하였던바 범죄자와 정상인과의 정체감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는 범죄자와 자아정체감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報告한 Kodan daram(1981)²⁹⁾의 연구결과와도 一致한다.

<그림 1>은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주체성 8개 하위척도별 득점 점수



Note. Non-Delinquent Group : 정상청소년집단 Delinquent Group : 비행청소년집단
 ST : 안정성 GD : 목표지향성 UN : 독특성 IE : 대인역할기대 SE : 자기수용
 SA : 자기주장 SO : 자기존재의식 IR : 대인관계

<그림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정체감 8개 하위척도비교

2.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특징적 환경요인에 대한 비교

〈표 2〉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특징적 환경요인에 대한 비교

집단구분 및 환경요인 통계치	정상집단 (N=116)		비행집단 (N=105)		자유도	χ^2	유의도
	사례수(N)	빈도율(%)	사례수(N)	빈도율(%)			
종교							
① 기독교	43	37.1	26	24.8	3	8.1086	.0438*
② 불교	17	14.7	24	22.9			
③ 천주교	9	7.8	3	2.9			
④ 유교	0	0	0	0			
⑤ 무교	47	40.5	52	49.5			
출생순위							
① 장남	61	52.6	23	21.9	3	25.9373	.0000***
② 중간	7	6.0	22	21.0			
③ 막내	39	33.6	47	44.8			
④ 독자	9	7.8	13	12.4			
부모의 생존여부							
① 부모 생존	106	91.4	79	75.2	3	10.8927	.0123*
② 부모 사망	2	1.7	3	2.9			
③ 편부 생존	3	2.6	8	7.6			
④ 편모 생존	5	4.3	15	14.3			
가족의 월수입							
① 10만원 이하	0	0	3	2.9	4	33.0235	.0000***
② 11-20만원	0	0	0	0			
③ 21-30만원	1	0.9	8	7.6			
④ 31-40만원	3	2.6	22	19.0			
⑤ 41-50만원	5	4.3	10	9.5			
⑥ 50만원 이상	107	92.2	64	61.0			
가족제도							
① 핵가족	107	92.2	97	92.4	1	0.0015	.9690
② 대가족	9	7.8	8	7.6			
부친의 직업							
① 전문직	13	11.2	1	9.5	8	67.5716	.0000***
② 회사원	38	32.8	0	0			
③ 교원	6	5.2	0	0			
④ 상업	31	26.7	20	19.0			
⑤ 농업	0	0	10	9.5			
⑥ 공업	3	2.6	4	3.8			
⑦ 노동	5	4.3	18	17.1			
⑧ 무직	1	0.9	13	12.4			
⑨ 기타	19	16.4	30	28.6			

집단구분 및 환경 요인 통계치	정상집단 (N=116)		비행집단 (N=105)		자유도	χ^2	유의도
	사례수(N)	빈도율(%)	사례수(N)	빈도율(%)			
모친의 직업							
① 유	37	31.9	46	43.8	1	3.3352	.0678
② 무	79	68.1	59	56.2			
성장시 거거장소							
① 부모와 함께	112	96.6	99	94.3	4	10.2789	.0360*
② 친척 집	1	0.9	0	0			
③ 자취	0	0	3	2.9			
④ 하숙	0	0	0	0			
⑤ 사회복지기관	0	0	3	2.9			
⑥ 주거 부정	0	0	0	0			
⑦ 기타	3	2.6	0	0			
성장과정 동안 부모의 동거여부							
① 부모가 이혼	2	1.7	4	3.8	4	14.6068	.0056**
② 부모가 별거	0	0	7	6.7			
③ 계부 슬하에	1	0.9	6	5.7			
④ 계모 슬하에	1	0.9	0	0			
⑤ 비해당	112	96.6	88	83.8			
성장과정 동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① 아버지	27	23.3	28	26.7	5	29.7598	.0000***
② 어머니	38	32.8	57	54.3			
③ 스승	12	10.3	0	0			
④ 선배	0	0	3	2.9			
⑤ 동료	15	12.9	11	10.5			
⑥ 기타	24	20.7	6	5.7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① 진로문제	84	72.4	54	51.4	4	27.6027	.0000***
② 이성문제	15	12.9	4	3.8			
③ 건강문제	3	2.6	8	7.6			
④ 성격문제	6	5.2	10	9.5			
⑤ 학교나 사회 생활 적응문제	8	6.9	29	27.6			

집단교분 및 환경요인 통계치	정상집단 (N=116)		비행집단 (N=105)		자유도	χ^2	유의도
	사례수(N)	빈도율(%)	사례수(N)	빈도율(%)			
자신이 느끼는 가정내 문제점은							
① 경제적으로 어렵다.	5	4.3	23	21.9			
②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8	6.9	4	3.8			
③ 집안에 우환이 있다.	3	2.6	7	6.7	6	24.5659	.0004***
④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8	6.9	4	3.8			
⑤ 부모사이가 나쁘다	6	5.2	3	2.9			
⑥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19	16.4	25	23.8			
⑦ 비 해당	67	57.8	39	37.1			

*P<0.05, **P<0.01, ***P<0.001

<표-2>는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특징적 환경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양집단간의 항목별 문항에 대한 사례수와 빈도율(%)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양집단간의 항목별 문항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 값과 유의도를 제시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論議는 다음과 같다.

1) 宗教有無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정상집단에서 무교가 40.5%에 비해 비행집단이 4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비행집단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出生別位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장남이 정상집단의 52.6%, 비행집단은 막내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숙행(1979)³⁹⁾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의 영양하에 성장하였을 경우 특히 중간순위에서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異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와는 相反되는 결과로서 구체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3) 父母의 生存否與 분포는 두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이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는 정상집단에서 편모생존이 4.3%에 비해 비행집단이 14.3%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lair와 Day(1979)⁴⁰⁾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부모간의 관계, 구성으로 구분지어 연구되어진 결과에서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한 편부

모 가정의 학생들이 정체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報告와 함께 특히 편부모보다 편모슬하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Gregory(1965)⁴¹⁾의 報告와 一致한다.

4) 家族의 月收入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특히 이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는 정상집단에서 31 ~ 40 만원이 2.6%에 비해 비행집단이 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aphael(1978)⁴²⁾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들이 정체감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정체감 혼미의 원인이 된다고 報告한 결과에 비추어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월수입이 주로 20 만원 ~ 40 만원의 분포를 보인 김소야자(1983)⁴³⁾의 報告와도 一致한다.

5) 家族制度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9690$). 즉 양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도시중심 특히 서울의 가족구조가 이미 대부분 핵가족으로 변화되어진 결과라 사료된다.

6) 父親의 職業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특히 이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는 정상집단에서 노동 4.3%, 무직 0.9%에 비해 비행집단이 노동 17.1% 무직 1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되었던 가족의 월수입과 비교해 볼 때 부친의 낮은 직업의 자녀와 비행과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7) 母親의 職業有無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687$). 즉 양집단간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집단의 모친 직업유는 31.9%에 비해 비행집단이 4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친이 직업을 가질 경우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히 자녀의 성격 및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이라 비행의 원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 李勳求(1979)¹²⁾의 報告와 一致한다.

8) 成長時 寄居場所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정상집단(96%)과 비행집단(94.3%)이 대부분 부모슬하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가 범죄인으로 완전히 분리된 소년원생이 아닌 경찰서로 막바로 들어오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행청소년 중에는 정상소년과 같이 부모슬하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비행 집단만이 자취 2.9%, 사회복지기관 2.9%의 비율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성장시 가정환경이 비행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示唆한다.

9) 成長過程時 父母의 同居與否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성장과정시 부모가 이혼 및 별거 그리고 계부, 계모 슬하에 있었던 경우 정상집단에서 총 3.5%에 비해 비행집단이 총 1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 및 별거와 그 밖의 부모들간의 부조화의 상태에서 자녀들은 욕구 불만이 커져 비행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Nye(1958)⁴⁴⁾의 報告와 一致한다.

10) 成長過程 동안 가장 크게 影響을 받은 사람별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외로 정상집단에서 어머니 32.8%에 비해 비행집단이 54.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것은 비행의 환경적 요소로서 특히 부모와의 친밀감과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성을 報告한 先行研究⁴⁵⁾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8)번에서 언급되어진 비행청소년의 표집대상에서 생겨난 오류라 생각되어지나 더욱 세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11) 現在の 가장 큰 當面 問題點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정상집단에서는 진로문제 7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성문제 1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행집단은 진로문제 51.4%로 역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 27.6%로 정상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집단에서 진로문제가 가장 높은 것은 정상집단의 대상자들은 정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입시에 대비하고 있는 학생인 점과 비행집단의 대상자 역시 학생신분으로서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들어온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짐작되어진다. 한편으로 비행집단에 있어서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의 특징적 변인임을 보다 잘 입증해 준 결과라 볼 수 있다.

12) 자신이 느끼는 家庭內 問題點別 분포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번 문항에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설문 응답에 비해당 항목에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어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응답을 회피한 것인지 아주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집단에서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16.4%에 비해 비행집단이 2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상집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4.3%에 비해 비행집단이 21.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진 경제적 측면은 청소년비행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앞서 진술한 가족의 월수입과 부모의 직업적 측면과 관련지어 볼 때 유사한 원인을 제공한 결과이며 또한 비행집단이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점이 높다는 사실은 부모와 자식간 대화의 단절에서 생겨나는 무관심과 애정 결핍이 비행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만 요인임을 지적한 Andry(1960)⁴⁶⁾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V. 結 論

本 研究는 첫번째, 靑少年期의 중요한 發達課業이 自我正體感의 形成에 있다고 한 Erikson의 正體感 形成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에 따른 自我正體感 形成 水準의 차이를 糾明하고자 하였다. 두번째, 비행청소년의 비행원인이 家庭, 社會環境 그리고 心

理的 要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행원인의 환경적 요인들중 特徵的인 事項만을 제시하여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에 따라 環境要因의 差異를 追加 糾明하려는 데 주된 두 가지 研究目的을 두어 청소년들에 대한 깊이 있는 理解를 돕는데 寄與하기 위함이다.

上記의 研究目的을 살펴보기 위한 研究對象으로서 정상청소년집단은 서울소재의 P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 116명(평균연령 16.67), 비행청소년집단은 서울소재의 N경찰서에 4개월 동안 비행을 범하여 들어온 청소년 105명(평균연령 16.23)으로 하였다.

또한 本 研究에서 사용되어진 檢査 道具는 Dignan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拔萃 追加한 徐鳳延의 자아정체감 척도로서 총 64개 문항을 8개의 下位尺度로 나뉘어진 자아정체감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을 下位尺度別과 全體尺度로 分析되었다.

蒐集된 資料의 統計處理는 SPSS/PC+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의 下位尺度和 全體尺度에 관한 양집단간의 차이는 t-test로 分析되었으며 特徵的 環境要因에 대한 양집단간의 문항별 차이는 χ^2 檢證으로 分析되었다.

1.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자아정체감 8개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 수준에 대한 비교

1) 자아정체감 8개 하위척도의 평균 득점에 있어서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獨特性($P < 0.05$), 自己受容($P < 0.05$), 自己主張($P < 0.05$), 對人關係($P < 0.01$)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척도중 安靜性($P < 0.001$), 目標志向性($P < 0.001$) 對人役割期待($P < 0.001$) 그리고 自己存在意識($P < 0.001$)에서는 아주 유의하게 낮은 득점을 보였다.

2) 전체척도 평균 득점에 있어서도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현저하게 낮은 득점을 보였다($P < 0.001$).

2. 정상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간의 특징적 환경요인에 대한 비교

1) 宗教有無別로는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무교』가 비교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집단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2) 出生順位別로는 정상집단에서 『장남』이, 비행집단은 『막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3) 父母의 生存與否別로는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편모생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4) 家族의 月收入別로는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31-40』만원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5) 家族制度別 분포로는 양집단간 모두 『핵가족』이 많았으며 양집단간의 『대가족』 역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P=0.9690$).

6) 父親 職業別 분포로는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노동』 및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7) 母親의 職業有無別 분포로는 양집단간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집단보다 비행집단이 모친의 『직업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687$).

8) 成長時 寄居場所別 분포로는 정상집단과 비행집단이 대부분 『부모슬하』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집단만이 『자취』, 『사회복지기관』에 다소의 분포를 나타냈다($P < 0.05$).

9) 成長過程時 父母의 同居與否別 분포로는 성장과정시 부모가 『이혼』 및 『별거』 그리고 『계부』, 『계모 슬하』에 있었던 경우의 전체 분포가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0) 成長過程 동안 가장 크게 影響을 받은 사람별 분포로는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외로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어머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11) 現在의 가장 큰 當面 問題點別 분포로는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진로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은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12) 자신이 느끼는 家庭內 問題點別 분포로는 특이하게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비해당』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해당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가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參 考 文 獻

1.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series 1., No.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01 ~ 165(1959)
2. Erikson, E.H.: *Psychological identity*. In D.L.Shills et al.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Company & Free Press, 7, 61 ~ 65(1974)
3. Erikson, E.H.: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 of Am Psychosocial Assoc 4, 56 ~ 121(1955)
4.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 261(1963)
5. Miss, R.F.: *Theories of Adolescence* (3rd ed) N.Y.: Rondon house (1975)
6. 黃順奎: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1979)
7. 청소년 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1990)
8. 金光日, 원호택, 이정효, 김광윤: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II), 정신건강연구, 제 1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3)
9. 韓完相: 현대사회와 청소년 문화, 범문사 (1974)
10. 金賢鎔: 非行靑少年의 正體感에 관한 個人的 構成概念 接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 金炳泰: 靑少年期 自我正體感의 發達 및 測定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89)
12. 李勳求, 宋忍燮: 青少年非行的 社會心理學的 側面, 行動科學 研究 第 12 卷 第 4 號,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9)
 13. Gibbon, D.C.: *Delinquent Behavior*,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26 ~ 128 (1970)
 14. Caldwell and Black: *Juvenile Deinquency*, New York: Ronald Press, 11 ~ 12(1971)
 15. Waterman, A.S.: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t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 ~ 358(1982)
 16. 이평숙: 정신간호학, 신광출판사, 62 ~ 64(1982)
 17. 朴雅晴 著: 아이덴티티의 탐색, 경민사, 54 ~ 66(1984)
 18.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1968)
 19. Jacobson, A.: *The self and the Objective Wor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4)
 20. Douvan, E. & Adelson, J.: *The self and identity*, In Rogers, D.,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66-172(1969)
 21. Murray, J.B.: The identity image of the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Reports*, 14, 267(1964)
 22. Bellak, L., Hurvich, M., Gedman, H.K.: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rics, and normals*. Wiley-Interscience, 268-331(1973)
 23. Kodan daram, P.: Social identity among criminals, mental patients and normals. *Indi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7-140(1961)
 24. Offer, D.: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oncept of the Normal Adolescent. *Arch Gen Psy.*, 38, 149-152(1981)
 25. 하형욱: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주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3 (2), 160-166(1984)
 26. Hauser, S.T.: Ego development and self-image complexity in early adolescence. *Arch Gen Psychiatry* 40, 325-332(1983)
 27. Gruen, W.: Rejec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oneself as an indication of ego ident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 231-233(1960)
 28. Rasmussen, J.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logic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5, 815-825(1964)
 29. Dignan, S.H.: Ego Identity &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 (5), 475-483(1965)
 30. Marcia, J.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3 (5), 551-558 (1966)
 31. 徐鳳延: 自我正體感 形成에 關한 心理學의 一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102(1975)
 32. 徐鳳延: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제 2 집, 1-25(1979)
 33. 趙修延: 고등학교 교육의 분화체제가 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34. 한인미: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35. 유숙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9-210(1982)
 36. 金聖泰: 發達心理學, 法文社, 310-311(1985)
 37. 行動科學 研究: 國家發展과 青少年, 韓國行動科學研究所, 제 10 권, 251-253(1977)

-
38. 李璵鉉 :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사회연구, 제 1 집,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78)
39. 조숙행 : 청소년의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 18 권, 3호, 298(1979)
40. Clair, S., & Day, H.D.: Ego identity status and value among high school females. *J. Youth & Adoles.* 8: 317-326(1979)
41. Gregory, I.: Anterospective data following childhood loss of a parent, *Archives of Gen. Psychiatry*, 13, 99-109(1965)
42. Raphael, D.: Identity status in high school females. *Adolescence*, 13: 627-641(1978)
43. 김소야자 : 비행 청소년 발생과 가족환경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13 권, 1호, 34-40(1983)
44. Nye, F.I.: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1958)
45. Glueck, S., & Glueck, E.T.: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mmonwealth Fund. (1950)
46. Andry, R.G.: *Delinquency and parental pathology*. London: Methuen (1960)

**A Study on the Formation Level of Ego-Identity
and Environmental Factor in Adolescence**

Eun-Hee Jun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The first; on the ground of the formation theory of Erikson's ego-identity which the important developmental-task in adolescence lies in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The formation level of ego-identity was to examine to the level difference between "Juvenile Delinquent Group(J.D.G)" and "Non-Juvenile Delinquent Group(N.J.D.G)". The second; to present a distinguished matters among these environmental-factors because the source of delinquency be in close connection with family, society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factors. A special environmental-factors was to prove to the difference between J.D.G and N.J.D.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randomly selected: J.D.G is 116 male students(mean age: 16.57 yr.) in 1st and 2nd grades in a liberal high school, while N.J.D.G is 105 juvenile delinquent (mean age: 16.23 yr.) which have come into a police station to make a misdeed. And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was examined in ego-identity scale which designed by Suh-Bong Yean and which consisted of total 64 items as 8 sub-scales.

The statistic treatment of data used the SPSS/PC⁺ program. The level difference of ego-identity between two groups is analyzed by t-test. And the difference of a special environmental-factors is analyzed by χ^2 test.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mparing the level difference of ego-identity between J.D.G and N.J.D.G. in 8 sub-scales and total scales.

1) According to mean score of ego-identity in 8 sub-scales, N.J.D.G showed lower score wholly than J.D.G in "uniqueness" ($P < 0.05$), "self-acceptance"

($P < 0.05$), "self-assertiveness" ($P < 0.05$) and "interpersonal-relation" ($P < 0.01$). Especially, N.J.D.G showed lowest score significantly than J.D.G in "stability" ($P < 0.001$), "goal-directedness" ($P < 0.001$),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P < 0.001$) and "sense of self" ($P < 0.001$) among sub-scales.

2) According to mean score of ego-identity in total-scales, N.J.D.G showed lower score remarkably than J.D.G ($P < 0.001$).

2. Comparing the difference of a special environmental-factors between J.D.G and N.J.D.G.

1) On religion no-yes; J.D.G showed more relatively than N.J.D.G in "Religion No" ($P < 0.05$).

2) On birth order; "The eldest son showed the most in N.J.D.G, while J.D.G. showed the most "the lastborn" ($P < 0.001$).

3) On the parents' existence; Especially, J.D.G showed more fairly than N.J.D.G in "widowed mother" ($P < 0.05$).

4) On month income of family; Especially, J.D.G showed more quite than N.J.D.G in "31-40 Man Won" ($P < 0.001$).

5) On system of family; All both group showed much in "nuclear family".

6) On the fathers' occupation; Especially, J.D.G showed the most than N.J.D.G in "labor" and "without occupation" ($P < 0.001$).

7) On presence of the mothers' occupation; J.D.G showed more comparatively than N.J.D.G in "the mothers' occupation existence" ($P = 0.0687$).

8) On the place of life during growth; Particularly, all both group showed much in "together parents" ($P < 0.05$).

9) On living together of parents during growth; J.D.G showed more comparatively than N.J.D.G in "divorce" "separation" ($P < 0.01$).

10) On person that two group were much affected during growth; All both group showed more in "mother & father". But J.D.G showed more peculiarly than N.J.D.G in "mother" ($P < 0.001$).

11) On the presents' chief problem with you is confronted; All both group showed the most in "one's way for an advanced school". On the other hand, J.D.G showed much more than N.J.D.G in "social life adaptation" ($P < 0.001$).

12) On the family problem which oneself be felt most severely; Especially, J.D.G showed more remarkably than N.J.D.G in "economic difficulty" and "not converse with parents on a problems" ($P < 0.001$).